



# 나성범 “부상 없이 후반기 완주 올 시즌 우승하고 싶다”



“(최)형우 형과 우승 하고 싶다”며 KIA 타이거즈 나성범이 뜨거운 후반기를 예고했다. KIA는 야수진의 줄부상으로 기록 많은 전반기를 보냈다. 지난해 이적 후 첫 시즌에서 144경기를 소화하면서 팀의 해결사이자 개근생으로 역할을 했던 나성범도 KIA가 애타게 기다린 부상자 중 한 명이였다.

WBC 대표팀에서 부상당한 나성범은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웠다. 예민한 종아리 부위의 근막 손상으로 나성범의 걸음은 더뎠고, 6월 23일 KT전을 통해서 드디어 시즌을 열었다. 복귀 후 나성범은 14경기를 소화한 뒤 윌스타브레이크를 맞았다. 실전이 부족했던 만큼 전반기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나성범은 “타격이 오르락 내리락했기 때문에

## WBC 대표팀 경기 부상 복귀 후 14경기서 6홈런 “최형우 형과 함께해 영광 동료들과 우승 꿈꾸며 질주”

100%라고 할 수 없다. 이를 좋고, 이를 안 좋은 풍당풍당 흐름이었다”고 짧은 전반기를 평가했다. 꾸준함이 부족했지만 나성범이 보여준 파괴력은 눈에 띄었다. 나성범은 복귀 후 61타석에서 19개 안타를 만들어냈고, 이 중 6개를 담장 밖으로 날렸다. 시즌 첫 경기에서 4번째 타석 만에 홈런포를 가동한 나성범은 팀이 6연승을 달리는 동안 4개의 홈런을 터트리면서 힘을 보탤었다. 나성범도 “홈런은 만족한다. 연습에 기여해서 좋

다. 타구질이 워낙 좋아서 만족스럽다. 하지만 더 욕심이 난다. 나갈 때마다치고 싶은 게 타자의 욕심이다”고 웃었다. 팬들에게도 길었던 기다림, 나성범에게도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나성범은 “복귀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다. 빨리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TV로 경기를 지켜보면서 나중에는 많이 힘들었다.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시즌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마음을 다잡으며 준비를 잘한 게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나성범이 후반기 목표이자 키워드로 짚는 것은 ‘부상’이다. 나성범은 “나 뿐만 아니라 우리 팀 모든 선수가 시즌 끝날 때까지 아예 부상을 안 당하면 좋겠다. 개인은 물론 팀에도 마이너스다. 팀이 약해보이는 게 싫다. 다친 선수 없이, 부상 선수들도 빨리 완쾌해서 야구장에서 같이 뛰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나성범은 타석은 물론 팀에서도 허리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다. 그래서 김도영의 성장, 최형우와의 우승이 나성범에게는 또 다른 키워드다. 나성범은 “도영이가 부상을 당한 날 나도 다쳤다. 그날 퓨처스 경기에 나가서 관중으면 홈 개막전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무리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TV로 경기를 보다가 도영이가 다친 것을 봤다”며 “나이 차도 있고 그렇게 깊게 이야기를 했던 사이는 아닌데 재활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다. 치료를 위해 일본에도 동행했다. 같이 있다 보니 편해졌다. 도영이가 불편하지 않게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다가와줬던 것 같다.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선수, 도움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훈련하고 웨이트 하면서 변화를 느꼈다. 체형 변화도 느끼고, 파워가 늘었다는 게 보였다. 내가 나중에 야구를 그만두더라도 그 뒤를 이을 후배들이 커야 한다. 도영이가 KIA 타이거즈 주축

을 맡아야 한다”며 “아직 잠재력이 100% 터지지 않은 선수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다. MVP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다”고 언급했다. 김도영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나성범은 최형우와 우승을 이루는 순간을 꿈꾸면서 후반기를 달릴 생각이다. 나성범은 “복귀했을 때 형우 형이 많이 반겨줬다. 형우 형 같은 선수와 같은 팀에서 야구를 한다는 게 영광이다. NC에 있으면서 저런 선배들과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KIA하면 최형우, 양현종, 김선민 선수가 있었다”며 “팀 동료가 돼서 신기하기도 했고 좋기도 했다. 이 선수들과 같이 우승 하고 싶다. 형우 형 있을 때 꼭 하고 싶다. 시즌을 보내면 연패도 있고, 연습도 있다. 연패를 얼마나 짧게, 연습은 얼마나 길게 가느냐가 중요하다. 부상 없이 좋은 후반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조지아 국대 출신 베카 신규 등록

### K리그1 외국인 선수 14명 영입



올 여름 K리그1 이적 시장을 통해 25명의 선수가 새로 등록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현재 2023시즌 K리그1 추가 등록 기간에 국내 11명, 외국인 14명 등 총 25명의 선수가 새로 영입됐다”고 밝혔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팀들이 활발히 움직였다. 11위 강원FC가 윤일록과 투치(몬테네그로), 야고(가브리엘-웰링턴(이상 브라질) 등 5명의 선수를 영입했다. 10위 수원FC와 12위 수원삼성도 전역선수를 제외하고 각각 4명과 3명의 선수를 등

록하면서 전력 보강에 나섰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브라질’ 강세가 눈에 띄었다. 이번에 새로 등록된 외국인 선수 14명 중 7명은 브라질 출신이었다. 로페즈(수원FC), 무고사(인천) 등 과거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외국인 선수들의 복귀도 이뤄졌다. 5강 진입을 노리는 광주FC는 조지아 국가대표 출신의 스트라이커 베카를 영입해 화력을 강화했다. 승강제 도입 이후 10시즌 동안 추가 등록 기간에 K리그1 12개 구단이 영입한 선수는 평균 32명. 가장 많은 선수가 움직였던 시즌은 2015시즌으로 41명이 영입됐다. 지난해에는 22명으로 추가 등록 선수가 가장 적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던 2020시즌에는 구단들의 긴축 재정과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선수 영입 난항으로 4명의 외국인 선수만 등록됐다. 추가 등록기간 최다 영입 기록은 2015시즌 대전이 가지고 있다. 당시 강등권에 머물던 대전은 완델손을 포함해 11명의 선수를 데려오면서 전력 보강에 나섰다. 하지만 대전은 대대적인 영입에도 2015시즌 강등의 아픔을 겪었다. 이번 이적시장에서도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어느 팀이 ‘영입 효과’를 누릴 지가 후반기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적 시장의 또 다른 영입도 관심사다. 각 구단은 20일까지 새로운 선수를 추가 등록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아디다스, 손흥민 축구화 출시 ... 아시아 선수 최초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손흥민(토트넘)과 함께한 15년을 기념하는 특별 한정판 축구화를 출시했다. <사진> 아디다스는 18일 “손흥민 후원을 시작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함께 성장하고 빛났던 순간들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하고자 ‘손흥민 팩’을 기획했다”며 “아디다스가 아시아 선수를 위한 한정판 축구화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아디다스는 그동안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데이비드 베컴(영국), 지네딘 지단(프랑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한정판 축구화를 선보인 바 있다. /연합뉴스



## 정대영, 41살에 새로운 도전... “변화 두려워 마세요”

### 여자 프로배구 최고령 선수 GS칼텍스 미들블로커 계약 20살 차 후배들과 시즌 준비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대영은 “GS칼텍스와 계약하기까지 많이 고민했다”며 “40대 나이에 익숙한 환경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정대영은 “배구 선수뿐 아니라 모든 선수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은퇴를 앞둔 선수도 FA 자격을 얻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처럼 배구선수의 길을 걷는 딸, 김보민(13-제천여중 배구부) 양이 이적 결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대영은 “딸에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보민이는 과묵한 편인데, 내게 대담하다며 응원해주더라. 딸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대영은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13일부터 시작된 일본 전지훈련에서 이를 악물고 맹훈련을 소화

중이다. 20살 이상 차이 나는 후배들과 같은 강도의 훈련으로 2023-2024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20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한 탓에 몸엔 성한 곳이 없다. 두 무릎 연골은 모두 닳은 지 오래다. 정대영은 “지난 시즌 무릎이 매우 아파서 은퇴를 고민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최근 집중 치료와 관리를 한 덕에 많이 좋아졌다. 앞으로 3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었다. 후배들에게도 ‘언니’가 아닌 ‘동료’로 다가가고 있다. 16살이 어린 주장 강소휘는 “소녀 같은 언니”라며 “세대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정대영은 나이를 잊은 지 오래다. 그는 “나이를 생각하면 그 나이처럼 행동하게 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너무 나이를 신경 쓰는 것 같다”며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대영은 몸이 버티주는 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여자부 최고령 선수인 GS칼텍스의 미들블로커 정대영(41·사진)은 2022-2023시즌을 마친 뒤 큰 결심을 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우승을 이끈 정대영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GS칼텍스와 계약기간 1년 총액 3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GS칼텍스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된 ‘진정팀’이지만, 낯선 환경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를 코앞에 둔 선수가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지도자, 동료들과 호흡을 다시 맞춰야 한다는 건 도전에 가까웠다. 정대영은 무엇 때문에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일까. 그는 17일 구단 전지 훈련지인 일본 이바라키현 히타치나카시에서 취재진과 만나 “모든 이들에게

## 뮌헨 대표 “김민재 입단 며칠 내 이뤄지길 바란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가’ 바이에른 뮌헨의 안 크리스티안 드레센 대표이사가 한국 국가대표팀 ‘수비의 핵’ 김민재를 언급하며 얼른 입단이 확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드레센 대표는 17일(현지시간) 하파엘 게레이루, 콘라드 라이머의 입단 기자회견에 김민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드레센 대표는 “김민재는 흥미로운 선수다. 당연히 우리 팀에 오길 원한다”며 “하지만 아직은 (영입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며칠 내 (입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레센 대표의 발언처럼 김민재는 뮌헨 입단이 유력하다. 지난 15일 김민재의 소속팀 나폴리(이탈리아)는 홈페이지에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첫 번째 프리 시즌 참가 선수 명단을 발표했는데, 김민재의 이름은 빠져있다. 김민재와 완전히 결별했다는 신호다. 나폴리는 1일부터 15일까지 김민재에 대한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했다. 이 기간에 김민재의 최소 이적료를 맞추는 구단이 나오면 이적이 완료된다. 이탈리아 매체들은 이에 대해 “김민재가 나폴리 프리시즌 명단에서 제외됐다”라며 “뮌헨이 김민재의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금액인 5천만 유로를



김민재 나폴리에 송금했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뮌헨이 김민재의 새로운 동지가 된다. 지난해 여름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는 중앙 수비수로 맹활약하면서 팀이 33년 만에 세리에A 정상에 오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연합뉴스